



‘로미’와 함께 하는 신도청 문화기행

경북도청 안내·통역 가능 대한민국 최초 공공청사 안내로봇

“경북도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내로봇 ‘로미’입니다.”
 ‘로미’는 도청 청사에서 웃는 얼굴로 방문객과 직원들을 맞이하는 로봇으로, 영화 속 기술이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 경북도는 대한민국 공공청사 최초로 사람처럼 감정표현이 가능하고 기본본인 일상 대화와 사람을 인지에 홍보·안내서비스를 맡아줄 안내로봇 ‘로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로미’는 본관(안민관) 로미 1층을 자율주행하며 청사 방문객을 맞이한다. 청사 안내 및 경북의 소개, 선비의 붓 등 예술작품 및 시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안내 기능과 로봇 모니터에 방문객 얼굴을 표출해 함께 사진촬영을 하는 나도로봇 기능,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댄스까지 1인 다역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역할로 어린이를 비롯한 청사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추가해 다양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7월중에는 청사안내와 간단한 일상대화, 8월까지 외국어 통역 기능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안내로봇은 미국 산호세페항에 고정형 안내로봇이 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평역로봇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북도가 도입한 ‘로미’는 자율주행·안내·통역·댄스까지 가능한 다기능을 가진 공공청사 최초의 문화로봇이라 할 수 있다.
 ‘로미’를 개발한 ㈜유저로봇은 경북 포항에 소재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협력기업체이다. 인건과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핵심기술로 하는 서비스로봇 전문기업으로 로봇핵심기술과 사업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여러개의 기술특허와 지능형로봇 기술대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한편, 경북도는 로봇산업의 메카로서 정부정책과 연계해 바다 밑에서 작업과 자원 탐사가 가능한 800억 원대의 수중정찰로봇산업과 재난상황에 대비한 700억 원대의 스마트 안전로봇 프로젝트를 경북미래 먹거리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로봇개발의 핵심 연구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청사 안내로봇을 도입한 김원경 경상북도지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경북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로봇산업,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아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이번에 도입한 로봇은 신청사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어른들에게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앞으로 다가를 로봇화 시킬 때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문화청사인 경북도청에서 미리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경북 교육 소식



경북대, (주)코렐텍에 기술로 25억원 규모 기술 이전

경북대학교 (총장 김상동)가 보유한 우수 기술을 관련 전문기업체에 기술로 25억원 규모로 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최재홍)은 경북대 의화전문대학원 김경태 교수가 개발한 ‘신경감시 장치’ 기술을 의뢰기업인 ㈜코렐텍에 기술이전하기로 하고, 7월 10일 경북대학교 글로벌센터에서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기술이전은 선급금 5억원과 5%의 로열티를 포함해 기술로 25억원 규모다.
 김경태 교수가 개발한 ‘신경감시 장치’ 기술은 기존 척추경 나사못에 신경 감시 장치를 도입해 나사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기술이다.
 김 교수는 이번 기술이전과 관련해 “이번 기술은 특히 차세대 수술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 수술이나 원격 장치 수술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어 미래의 척추 수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권관 및 의뢰기업 분야 국내 1위 기업(코스닥 상장 기업)인 주식회사 코렐텍은 ▲인공 고관절, 인공 슬관절 개발 ▲의료용 스크류 등 의료기기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 스마트폰 내 마음대로 사용 ‘나는야스마트폰 조절왕’

경북북도는 도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정보화취급능을 자기조절능력 강화로 해결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나는야스마트폰 조절왕’ 프로그램을 포함 시 송도 등각지에서 7월 10일부터 4일간(월·화·목·금) 운영 중이다.
 ‘나는야스마트폰 조절왕’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그룹(8-15명)을 구성해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진단하고, 스마트폰 사용의 유행병 인식교육, 문제점 탐색, 행동변화 및 증진활동, 자기표현 연습 등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한 청소년들은 SNS를 활용한 소통 및 대인관계형성의 문제점 이해, 개인에 대한 자기조절능력 키우기, 왜곡된 성취지식 교정, 모바일 등의 잘못된 인식의 이해 등 스마트폰 이용 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취약성이 가장 높은 4가지 유형의 처리방법에 참여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도 자신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이 낮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정보화취급능을 더 심각하게 낮아지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높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 성장과 인지능력 및 자의식의 미성숙 등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까지 지속될 수 있다.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3년 11.8%에서 2016년 17.8%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30.6%로 유아층 17.9%, 성인 16.1%에 비해 2배정도 높은 수준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전문 상담사 3명과 도내 출장 예방교육(가정방문) 상담사 1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경북스마트상담센터(054-241-0076)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만 잠실? 경북 상주에도 잠실이 있다!

옛 잠실(蠶室) 발굴로 양잠업 역사 보존 및 지속이용 계기 마련

조선 초 양잠업(蠶業) 장려를 위해 툇나루를 놓고 잠실(蠶室)을 둔 것에서 유래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는 상진백해(桑田碧海)란 표현처럼 거대한 야트막한 타운이 들어선 변화가로 변화한지 오래인 반면, 누에, 꽃잠, 쌀이 유명해서 예로부터 삼백(三白)의 고장이라 불리는 상주에서는 지역의 오랜 전통산업인 양잠업의 평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경북도는 전통 양잠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한 옛 잠실(蠶室)을 발견,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를 높이 평가해 2017년도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내서면 노유리 유정(柳亭) 마을에 위치한 옛 잠실은 1978-1982년 경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통 건물(누에 사육실)로, 명주와 누에고치의 본고장인 상주의 오랜 양잠 역사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 잠실(蠶室)은 현재 ‘상주 잠실(蠶室)영농조합법인’ 김경용 대표와 김길호 교수(경북대 생명자원과학과) 형제가 재보·발굴한 것이다.
 특히, 누에 키우기에 적합한 온·습도 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에는 흙과 짚으로

벽을 만들고, 지붕에는 빛·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재와 통풍구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김길호 교수는 “어린 시절 부모님들 도와 누에치던 기억을 기반으로 노유리 인근에 현대식 ‘누에 잠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 은파지의 귀농·귀촌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자연친화적·교육가치가 산업인 양잠업(蠶業) 재의 전성시대를 위해 상주 노유리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누에지는 마을기업’으로 도전 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옛 잠실(蠶室)의 산업유산지정을 통해 은척면 두곡리의 수령 350여년이 넘는 최고령 툇나루(경상북도기념물 제1호, 1972년 지정), 풍산(豊山) 기원제를 지내던 양잠터(산업유산 지정, 2013년), 경상북도 최고장인(명주 분야)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허씨비단직조 등과 함께 근대 양잠산업의 역사 보존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김남일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이번 지정으로 옛 잠실(蠶室)의 산업유산적 가치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누에지는 마을과 함정명주테마파크 등과 연계해 지리산의 세대의 새로운 문화체험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지역 일본뇌염모기 첫 출현

경상북도 지역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5일 이틀간 경상지역에서 채집된 모기 682마리 중 8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의 7월 첫주에 발견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일본뇌염의 주요 감염 경로는 모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되며, 사람과 사람 간에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본뇌염은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비록 90% 이상은 물려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으나, 일단 뇌염 증상을 보이면 사망률이 20-30%로 높고, 회복된 환자 중 30-50%가 반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보이는 모기매개 감염병이다.
 김관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도 앞으로 두 달 가량은 뇌염모기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므로 가정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며,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모기 유충의 서식처인 물웅덩이, 야구구, 정화조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정신건강지킴이 아이스캔

학생들의 스트레스!! 방치하면 병이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우울·불안·불조동력 등으로 고생하는 학생들!
 집중력·기억력·학습능력·정신적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세계38개국 특허출원” - 아이스캔 슬립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힐링케어제품
 시각·청각등을 활용한 오감만족,
 조용한 효과음, 뇌파·자면율역과 편안하고 안정적임 상우의 내레이션을,
 과학과 감성이 함께하는 아이스캔 콘텐츠내레이션이
 스트레스 및 심리적문제에 탁월한 효과!

각종 부작용없이 우울증, 스트레스, 학습장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수제연구소장과 심리요법을 과학기술로 재탄생
 최첨단 “아이스캔 슬립”을
 사용 경험하러하시라! 전국 수천점입니다.

세계최고 내레이터인 고기환 팀장

1. 학생들의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을 강화시켜줍니다.
 2. 집중력을 유지시켜 학습능력을 향상시킵니다.
 3. 과도한 긴장과 불안한 학생들의 정신집중에 도움을 줍니다.
 4. 모든 학생과 학업이 두뇌상태를 유지, 안정한 학습을 도와줍니다.
 5. 우울증과 불안한 마음을 힐링시켜서 편안함을 유지시킵니다.

안정적인, 안전한, 편안한 힐링 콘텐츠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등
 100여가지의 다양한 문제들을 개인적
 상황에 맞게 맞춤형 케어해드립니다.
 꼭 경험하십시오.

아이스캔 슬립

TEL.031-482-5127 FAX.031-483-5127